

삼성Atofian 고흥식 사장 논문발표

IUPAC 학술회의에서 신화학소재 개발성과 설명 ... 삼성과학자상 시상

고흥식 삼성Atofina 사장이 한국시간으로 7월7일 프랑스 파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순수응용화학연맹(IUPAC) 학술회의에서 <새로운 화학소재의 개발동향>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삼성Atofina에 따르면, 고흥식 사장은 발표논문을 통해 삼성Atofina가 지난 15년 동안 연구개발을 통해 출시한 새로운 화학소재와 다양한 기술적 성과를 설명하고 “환경과 인간을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소재 개발을 위해 과학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흥식 사장은 학술회의 마지막날인 7월9일 세계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젊은 과학자 3명에게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삼성과학자상을 시상한다.

1919년 창립된 IUPAC은 화학과 관련된 표준화나 규제가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해 연구·협의하고 학술어와 명명법을 통일하는 국제학술단체이다.

<화학저널 2004/07/08>